

“동양화에선 여백도 그림... 허와 실 조화로워야 즐거운 삶”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강연-한국화가 김병중 교수

동양 문인들 그림보다 시·서 연마... 노인들의 경지 존경 산수화·사군자 등 자연과 하나되는 물아일체 사상 중시

“동양화에는 자연과 함께하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물아일체(物我一體)의 사상이 깃들여있습니다.”

지난 7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7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화가 김병중 화백이 강사로 나서 동양화회의 특성과 중국과 한국, 일본 등 각국 그림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화백은 우선 동양화회 조형사조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문(文), 사(史), 철(哲), 예(藝)의 통합”이라고 표현했다.

오래전 중국의 문인(文人)들은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문(文)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수만자에 달하는 한자, 즉 문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이 필요하게 마련이다. 시를 짓고 서예를 수련한 뒤 갈고 닦았던 게 바로 그림이었다.

김 화백은 “동양에서는 그림을 그리기 전 문(文)의 경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야 했다”며 “그림을 그려놓고 그 옆에 시를 써 놓아야 하는데, 시의 가치가 떨어지면 덩달아 그림 가치와 품격도 떨어졌기 때문이

다”고 설명했다.

또 동양에서는 ‘노(老)를 나이가 들어 그만큼 경륜과 문의 깊이가 깊다고 여기며 노인들의 경지를 존경했다. 서구 미술에서는 30대 이전에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지 못하면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동양에서는 50대가 넘어서야 비로소 작품을 그려낼 수 있다고 여기는 등 동·서양 문화가 다르다고 했다.

“중국 그림들을 보면 모두 다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그 비슷한 속에서도 약간씩 다름이 있어요. 자기를 내세우기보다 문파를 만들어 집단 개성을 만들었습니다. 겸양지덕을 내세우는 유교적인 특성이 숨어 있는 것이죠.”

김 화백은 “그렇다 보니 동양화는 변함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미세한 자의식이 발현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흔히 동양화라고 하면 사군자와 산수화 등이 먼저 떠오른다. 이는 자연친화적인, 물아일체 사상이 그림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동양화를 보면 산은 거대하고 강이나 호

수는 한없이 넓게 표현하면서 사람은 아주 작게 그려놓은 작품을 흔히 볼 수 있다고 했다. 자연에 가까이 다가가고 결국 내가 자연의 일부가 되면 자연과 함께 되리라는 ‘월시도교’ 사상이 숨어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 김 화백은 유교문화가 동양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꺼냈다.

유교에서 강조했던 인(仁)과 덕(德)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래서 인물화를 그릴 때 덕을 표현하기 위해 ‘살집’을 사용했다. 인물을 묘사할 때 사람의 덕을 보여주기 위해 넉넉한 풍채가 돋보이도록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다.

“중국의 인물을 보면 다들 불에 살이 많고 후덕한 인상이 많죠. ‘왜 이렇게 똑같을까?’ 하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유교문화로 인해 인물을 덕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한 중국의 문화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중국의 문화는 불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말라고 행하는 모습의 불상에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후덕한 인상의 불상으로 변화하게 됐다.

이와 반대로 과거 한국의 인물화를 보면 광대뼈가 드러난 마른 모습의 인물화가 많았다. 중국과 다르게 산채나물 위주로 식사를 했던 옛 조상들은 후덕한 것보다 마른 모습을 더 덕스럽게 여겼다. 일본에서



김병중 화백(서울대 명예교수)이 7일 오후 광주시 서구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7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에서 동양 회화 조형사조의 특성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는 사람을 그릴 때 사람의 외모보다 의복에 더 신경을 썼다. 화려한 의복과 의상의 곡선, 얼굴의 화장 등에 더 신경을 쓰는 등 중국과 한국, 일본의 특색이 다르다는 게 김 화백의 말이다.

“동양화에는 여백이 있습니다. 산수화와 수묵화를 그릴 때도 여백을 계산해 그림을 그려놓았어요. 중국의 ‘팔대산인’(八大

山人)의 그림을 보고 일본의 한 학자가 ‘여백에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이 없더라’고 말할 정도로 여백은 비어있는 게 아니라 그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김 화백은 “사람들이 잘 따르는 사람들 보면 ‘허허실실’(虛虛實實)이더라’며 “삶을 살면서 실(實)만 계속되면 여백이 없어 재미가 없기 때문에 허(虛)도 적절히

조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7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는 오는 24일 문화의 날 행사로 일본의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의 공연을 관람하고, 28일에는 그룹 다섯손가락 보컬 출신의 이두현 교수가 진행하는 미니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김용택 시인 어머니·나태주 시인 아버지 등 ‘예술가의 장한 어버이상’ 6명 선정

훌륭한 예술가를 길러낸 ‘예술가의 장한 어버이상’ 수상자로 김용택 시인의 어머니 박덕성(91)씨와 나태주 시인의 아버지 나승복(93)씨 등 6명이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이들을 시상했다.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 어머니 최석순(82)씨와 클라리니스트 이상재 어머니 조묘자(79)씨, 국악인 서준영·서은

영·서진희 어머니 김순순(68)씨, 발레리나 김세연 어머니 조명상(79)씨도 수상자에 포함됐다.

‘섬진강 시인’으로 불리는 김용택 시인은 삶과 자연을 품어 안는 진솔한 시어와 빼어난 감각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꽃꽃 시인’ 나태주는 1970년대를 대표하는 서정시인으로 40여년간 전통적 서정성이 짙게 밴 시를 썼다. /연합뉴스

전남대병원 ‘어버이날’ 맞이 어르신 환자에 카네이션



전남대병원(병원장 이상용)이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 환자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하며 쾌유를 기원했다. 전남대병원 간호부(간호부장 신은숙)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70세 이상 어르신 환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전남대병원 제공>

블랙야크, 소외 어르신에 ‘사랑 나눔’

상무점, 6년째 ‘효박스’ 후원

광주 블랙야크 상무점(대표 박정남)이 홀로살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을 보냈다.

블랙야크 상무점은 지난 7일 ‘야크 효박스 시즌 6’ 후원품 전달식을 상무점에서 열었다.

가정의 날 5월을 맞아 블랙야크는 취약

계층인 독거노인들에게 옷과 식료품을 지원하고 있다. 블랙야크는 노인들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효(孝)박스’(20만원 상당)를 6회째 전달하고 있다.

블랙야크 상무점-아웃렛점 박정남 대표는 “광산구 노인복지관과 서구 노인복지관에 효박스 70개를 지원했으며, 남구 노인복지관에도 40개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마음의 눈으로 촬영합니다

시각장애인 사진 동호회 ‘상상클럽’ 장수사진 봉사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사진 동호회 ‘상상클럽’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장수 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 눈길을 끈다. <사진> 상상클럽 회원들은 가정의 달을 맞아 최근 광주시 광산구 한가족노인주간보호센터(대표 박미옥)를 방문, 장수사진 촬영 재능기부와 함께 어르신들에게 안마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상상클럽 회원들은 수혜의 대상인 시각장애인이 먼저 사회에 봉사한다는 의미로 지난해부터 재능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장애인연합회(회장 최삼기) 소속 장애인들로 지난 2015년 모임을 꾸린 상상클럽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힘을 모아 매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최삼기 회장은 “시각 장애인들이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고장관념과 편견을 깨는 것”이라며 “시각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받은 혜택을 다시 나누는 과정을 통해 사회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게됐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33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이기흥-최계숙씨 장남 효경군, 김중태(광주어린이교통공원소장-전 전남일보국장)·백귀덕(전남도교육청 장학사) 장녀 민지양 결혼 피로연=11일(토) 오후 5시 THE-K 웨딩홀 2층 062-352-1331.

▲노용재(전 서구청 복지환경국장)·정순복씨 장남 형섭군, 박상석·고(故)김미령씨 장녀 은우양=18일(토) 오후 2시 광주시 광산구 드래드웨딩홀 2층 CN홀 062-228-0000.

동창회

▲문성고등학교 총동문회(회장 배백호) 한마음 체육대회=11일(토) 오전 9시 문성고등학교 운동장 010-7570-3040

▲승일중·고등학교 총동문회(회장 오인성) 등반대회=11일(토) 오전 9시30분 무등산장 주차장 010-6890-1819.

▲승일중·고등학교 설립 60주년 기념행사=15일(수) 오전 11시 광주승일의고등학교 신촌관 062-606-5810.

종친회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지원장 이달우) 이화월례회(회장 이동재)=14일(화) 오후 6시30분 지원회의실 062-225-5636.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지원장 이달우) 청년이화월례회(회장 이태웅)=21일(화) 오후 7시 지원회의실 062-225-5636.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지원장 이달우) 여성이화월례회(회장 이보희)=22일(수) 오전 11시 지원회의실 062-225-5636.

알림

▲청소년전화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

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제공 062-522-9976.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콜센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061-285-1161.

모집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부음

▲강경연씨 별세, 봉준업씨 배우자상, 봉재홍(H.P법률사무소)·채우·소연씨 모친상, 이성희씨 시모상, 주성민씨 빙모상 발인 9일(목) 오전 9시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p>본관 2층 특7호 김태옥님(남/68세)</p> <p>子/子婦 : 김용준/이나라 女/婿 : 김지현/정광택 未亡人 : 고순심 ◇입관 : 5/8 09:00 ◇발인 : 5/9 11:30 ◇장지 : 영락공원(화) ◇연락처 : 250-4407</p>	<p>본관 3층 특12호 고정창현 님(여/88세)</p> <p>子/子婦 : 정기훈/김희경, 성영/조서현 女/婿 : 정순욱/양한규, 순덕, 순자, 순남/김용희 未亡人 : 김대현 ◇입관 : 5/8 13:00 ◇발인 : 5/9 06:50 ◇장지 : 담양공성연성(화) ◇연락처 : 250-4412</p>
<p>신관 3층 특302호 故윤금님 님(여/93세)</p> <p>子/子婦 : 민봉환/이광남, /이득욱, 경훈/이선희 女/婿 : 민봉환/이광남, /이득욱, 경훈/이선희 ◇입관 : 5/8 11:00 ◇발인 : 5/10 07:00 ◇장지 : 대전현충원(화) ◇연락처 : 250-4472</p>	<p>신관 2층 VIP예궁 故전옥순 님(여/92세)</p> <p>子/子婦 : 변재덕/조현숙, /유영자, 재권/전성미 女/婿 : 변정숙, 양숙/이현기, 정숙/전상규 未亡人 : 김귀임 ◇입관 : 5/8 09:00 ◇발인 : 5/10 09:00 ◇장지 : 담양공성연성(화) ◇연락처 : 250-4470</p>
<p>신관 4층 특401호 故최명선 님(남/87세)</p> <p>子/子婦 : 최범진/한보순, 형진, 용진/신수정 女 : 최정원 ◇입관 : 5/9 11:00 ◇발인 : 5/10 07:00 ◇장지 : 담양감향공원(화) ◇연락처 : 250-4473</p>	<p>본관 2층 특9호 故김도현 님(남/세)</p> <p>子/子婦 : 김재현/강동례, 재술/강해경, 재필/문연실, 재규/송은임, 재은 未亡人 : 공귀임 ◇입관 : 5/9 11:00 ◇발인 : 5/10 07:00 ◇장지 : 담양남면연성(화) ◇연락처 : 250-4409</p>
<p>신관 4층 특402호 이승노님(남/71세)</p> <p>子 : 이현기 女/婿 : 이해정/정일서 ◇입관 : 5/8 10:00 ◇발인 : 5/9 07:00 ◇장지 : 감향공원(화) ◇연락처 : 250-4474</p>	

장례문화의 진당
그린장례식장
회장 김 영 관
24시 대기
062-250-4455
www.그린장례식장.co.kr